

“참회·정진만이 자아완성의 길” 청담스님 체취 ‘물씬’



◇도선사 경내에 건립된 청담기념관. 15일 개관하는 80평 규모의 기념관에는 100여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박정희대통령 당시 수여받은 국민훈장.



◇스님의 체취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버루와 먹, 붓.

“고해같은 이세상을 극락으로”

56~59년간 일기 기록된 수첩발견

“오박악세가 화방지옥이다. 그러나 사후서원의 굳은 원력은 고태를 정화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극락세계로 만들어 놓고야 말 것이다.”

청담유물기념관에 전시될 스님의 56년부터 59년까지의 수첩에는 글이 빼곡히 적혀있다. 이중 결장에 '나의 평생의 원위사願爲事는 완전한 인간됨을 원함'이라고 적혀있는 단기 4289년(서기 1956년) 수첩에는 비행기를 처음 탄 스님의 글이 눈에 띈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11월 14일 세계불교도대회 참석차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쓴 듯한 글에는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해지기전 해상에 영커이 있는 구름바다가 보기 좋다. 아마도 천상사람들은 항상 이런 구경을 하리라. 잠시 동안이라도 신선이 되어보니 사후서원의 원력이 앞선다. 세상을 극락으로 바꿔놓겠다. - 중생제도 영원히 강하다.

스님의 글에는 이어 세계대회에서 제 기할 건의안이 적혀있다. 건의안에는 △원자폭탄 사용금지 결의 및 유엔에 건의 △네팔을 영세독립국으로 유엔이 보장하고 법왕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 △범의제와 가사 제안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스님은 일본에 도착해 사용한 지층내 역과 본 것들을 소소히 기록을 해줬는데, 호텔은 905호실, 숙박비는 1인실 2900원, 2인실 3600원, 조식 300원, 양식 500원, 저녁 700원등이 적혀 있다.

귀국한 길에 쓴 듯한 글에는 '비행기에서 석식을 즐긴다고 하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승무원에게 '불교는 오후 불식'이라고 하니 모두 저녁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를 포함해 모두 굶었다. 불타게서 경계하신 말씀이니 불행 한다'라는 글은 의지가 담겨 있다.

스님의 수첩에는 "참회와 정진만이 자아완성의 길"이라는 글귀도 눈에 띈다.



◇청담스님이 생전에 불교의 구세관을 설명하는 모습.

스님탄생 100돌, 기념관 15일 개관 생시 즐겨 쓴 유품 100여점 봉안

조계종 총정와 총무원장을 역임한 청담스님은 평생을 교단재건과 불법중흥에 바친 수행과 행정을 겸비한 근세 최고의 고승. 1926년 출가한 스님은 48년 성철스님과 조계종의 기틀을 확립한 봉암사 결사를 주도하는 등 50년대 초까지 선방남자로 정진했다. 55년 조계종 총무원장에 취임한 스님은 정화불사를 주도했으며, 종정도 지냈다.

스님은 1971년 11월 15일 열반에 드는 날까지 종단의 교육 경력 포교사업의 발전을 마련한 물론 국내 7대종교 모임을 만들어 종교간 교류를 처음 시도하고 세계불교 우의에도 새 지평을 열었다.

삼각산 도선사주지 해자는 청담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여 스님의 생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유품 100여점이 봉안될 '청담기념관'을 건립, 15일 개관한다. 현재 기념관내 전시작업은 동국대 박물관장 장충식 교수팀이 진행하고 있다.

청담기념관에는 스님이 생전에 사용한 주장자, 서화, 버루, 붓, 손가방, 바느질 주머니, 낙관, 동종 등 유품 100여점이 80평의 전시관에 상설 전시된다. 서예와 전각에 조예가 깊었던 스님은 평생 지닌 도선사 신달학원 현판도 직접 조각했다.

특히 50여점에 이르는 서화는 대중 포교용 '佛(佛)'자, 비웃, 큰스님 설법해설도, 휘호 '光明(광명)' 그림을 곁들인 '심수도'와 '구세관' 등 다양하게 갖춰져 보는 자제로 불자들의 공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스님의 행적이 일기행식으로 자세히 기록된 56년부터 59년까지의 수첩도 불교 근대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초대 유물관장 해명스님(해명정사 주지)은 "세상을 앞서 살아간 선각자들의 모습을 한곳에 보여줄 수 있게 만드는 곳이 유물관"이라며 "청담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전시관을 마련하고 단청불사와 함께

56년 세계불교도대회 참석...“비행기 처음”

‘원폭사용금지·법의제·가사 제안’ 기록



◇청담기념관에 전시될 스님의 56년부터 59년까지 사용한 수첩과 떨어진 부분을 직접 기록한 손가방·손가방 안에는 신문지에 감긴 가는 전선줄과 간이 바짓고리 등이 들어 있다.

정화운동에 앞장서며 어떠한 위태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늘 참고 정진하며 살아와 인유보살로 불리는 청담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생애와 사상이 재평가된다.

청담대종사 탄신 100주년기념행사 봉행위원회(위원장 정대은 청담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여 12일부터 20일까지 추모법회, 청담기념관 개관식, 두 차례의 학술세미나, 산사음악회, 논총 및 문집 간

행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10일 오후 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청담대종사이 불교사상과 불교교단 정화운동'을 주제로 열리는 1차 학술세미나는 성본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목정배 교수(전 동국대 교수) 등 6명이 주제발표한다. 이어 12일 오전 10시 수원 봉녕사에서 열리는 2차 학술세미나에서는 '청담대종사의 선사사상 및 수행과 교화행'을 주제로 법산스님(동국대 이진오 교수



◇스님 친필휘호 '민고광명'



◇스님의 상징인 육간장.



◇스님의 포교용서화 佛자.



◇도선사 신달학원은 해방이후 서울권 최초의 교육 기관이었다. 신달학원은 훗날 학교법인 청담학원의 모태가 됐다. 사진은 청담스님이 직접 조각한 현판.

체계적으로 유물과 유품이 진열되고 있는 만큼 불자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도선사 주지 해자스님은 "이런 큰스님 기념관 건립으로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담문화재단 이사장 동광스님은 "청담 문도회 스님이나 불자들이 소장하고 있는 청담스님의 유물을 기증받아 앞으로 경내에 새로 청담기념관을 건립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담대종사 탄신100주년 기념행사

학술세미나·산사음악회·논문집 간행 등 다양

부시대 등이 주제발표한다.

15일 오전 11시에는 도선사에서 김수환추기경 등 내외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담대종사 탄신 추모기념법회를 봉행하며, 이날 추모법회에서는 논총 및 문집 봉정식 및 청담스님 유물을 전시해놓은 상설전시관 개관식도 함께 거행한다. 또 이날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될 15편의 논문을 수록한 '청담 대종사와 현대 한국불교의 전개' 제목의 논총을 15일 발

간하고, 모두 11권으로 구성되는 청담스님 문집 가운데 <일어바린 나물 찾아서> <신심명강의 및 선입문> <자문록> 등 6권도 10월초에 완간한다.

이와 함께 도선사는 20일 오후 6시부터 도선사 경내에서 불자음악회와 연예인을 초청해 국악과 가요,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축제형식의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02993-3161